일본의 6·25전쟁에 관한 연구동향

李 鍾 判
(영남대 안보학 교수)

1. 머 리 말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패전 후, 연합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1947년의 평화헌법에서 전쟁포기, 전력 보유를 금지한 이후, 각 학교기관에서 전쟁과 군사에 관한 교육은 제한되었다. 1945년 10월 미국은 점령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경에 연합군총사령부(GHQ)를 설치하고, 일본이 더 이상 전쟁도발을 할 수 없도록, 민주화(democratization), 비무장화(de-militarization),

탈집중화(de-centralization) 등 3D 정책을 추진하였다.[1]

미·소 냉전기간에는 냉전의 발단과 심화과정을 연구하는데, 6·25전쟁은 국제관계연구에 주요테마가 되었다. 베트남전, 푸에블로호 사건, 오키나와반환 등 냉전이 심화될수록 동북아 및 일본의 안보와 관련하여 한반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6·25전쟁에 관한 문헌도 많다. 미국의 맥아더 기념관을 비롯하여 미국과 영국의 국립도서관과 군관련 도서관 등에서 자료가 수집되고 있다. 대학 및 일본군사사학회에서는 국제정치사와 국제관계 측면에서 연구되는 경향이 많았다.

6·25전쟁 개전, 휴전 30주년, 40주년, 50주년 등 일련의 주기를 절목(節目)으로 관심이 높았다. 개전책임론, 즉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가에 대해서도 북한선공설, 소련과 중국 및 북한의 3자공모설, 한국선공설, 한국과 미국의 공모설 등으로 나눠졌다. 냉전이 종결된 후,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 국교수립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비밀문서 등 일부가 해제됨으로써 북한선공설이 지배적이었다.

러시아 연구자 토루크노프의 저서 『6·25전쟁의 수수께끼와 진실』,[2] 일본에서 활동하는 중국학자 주건영의 저서 『모택동의 6·25전쟁』[3] 등을 통하여 소련과 중국관계가 크게 소개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 북한의 무장공작선의 일본영해침범에 따른 총격전, 또한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밀수선박, 북한 핵개발 등 북한위협론이 부각됨으로써 한반도 위기와 관련하여 일본방위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자위대를 비롯하여 연구자들은 6·25전쟁에서 역사적 교훈을 찾고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6·25전쟁발발 당시 대다수 일본국민들은 태평양전쟁의 패배에서 정신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식주문제는 물론, 경제는 파탄상태

1) 川上高司, 『米國の對日政策』, 同問社, 1996, p. 33.
2) トルクノフ, 『朝鮮戰爭の謎と眞實』, 下斗米伸夫, 金成浩 역, 草思社, 2001.
3) 朱建榮, 『毛澤東の朝鮮戰爭』, 岩波現代文學, 2004.

에 있었고, 공산혁명의 위기도 있었다. 일본공산당이 국회에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일본 각지에서 큰 열차사고와 스트라이크가 빈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6·25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의 매스컴을 비롯한 많은 지식층은 미군정에 비판적이었으며, 6·25전쟁에 대해서는 한국의 북침 내지는 도발에 대한 북한의 응징이라는 설이 유력했다. 개전직전 6월 1일에는 동경에서 반미폭동이 발생, GHQ은 이를 진압하고 공산당을 불법화 하였다.

6·25전쟁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적 재건 및 재군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일본에서 6·25전쟁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휴전 50년을 지난 지금에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본고의 주요 관점은 일본에서는 누가, 무엇을 위하여 6·25전쟁을 연구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자위대의 교육기관, 동경대학을 비롯한 3개 대학, 공산권의 전쟁관련문서가 공개되기 이전 진보지식인들의 연구동향, 공산권의 전쟁관련문서 공개이후 그들의 연구동향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한반도 문제가 6·25전쟁의 기원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역학구도 및 태평양전쟁 패전 후 일본의 진로, 오늘날의 방위력 건설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감안하여, 관련 국가들의 6·25전쟁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일본측의 자료수집 및 조사하는데 미키히데오 교수[4]의 많은 도움이 필요했음을 첨언한다.

4) 三木秀雄; 前 방위대학교 교수, 1926년생으로, 1952년 경찰예비대를 입대, 자위대 육장(육군중장에 상응)으로 퇴직, 1985년부터 1996년까지 방위대학교 전쟁사 교수로 근무, 그 후에도 통합막료학교 및 자위대 간부학교에서 고급간부를 대상으로 6·25전쟁을 강의하고 있다.

2. 6·25전쟁에 관한 일본 연구자, 연구기관의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요지

(1) 자위대의 연구자 및 연구기관

1) 방위대학교

방위대학교에서는 방위학(군사학) 가운데, 전사교육연구의 일환으로서 6·25전쟁을 연구 및 교육하고 있다.

사용하는 교재는 『6·25전쟁개사』(전사교양총서간행회, 1966년, 여명사)[5] : 1961년, 방위대학교 전사교관들이 집필했다.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한반도에 대하여/제1절 역사적 고찰, 제2절 지리적 고찰

제2장 개전경위/제1절 미·소 양진영의 대립과 냉전, 제2절 한반도분단경위, 제3절 남북한 대립격화, 제4절 군사력건설과 미군철수, 제5절 개전전야 국내외 정세, 제6절 개전전의 간접침략 고찰

제3장 작전경과 및 개요/제1절 제1단계(북한의 남침에서 부산 교두보공방전까지), 제2절 제2단계(인천 상륙작전에서 압록강 전진), 제3절 제3단계(공산군의 남진시기), 제4절 제4단계(유엔군 반격에서 38선으로), 제5절 제5단계(휴전대치에서 휴전회담까지)

제4장 6·25전쟁 결말과 그 후

6·25전쟁은 수도서울쟁탈 4회, 38선 돌파 3회, 한반도 국토 전체가 황폐화되고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공장은 파괴되고, 경제는 파탄, 국민은 기

5) 『朝鮮戰爭槪史』, 戰史敎養叢書刊行會, 1966, 黎明社.

아와 질병에 신음했다. 한반도 미래를 위한 정치회담은 제네바에서 토의되었으나 타결되지 못하고 지금도 미군을 주력으로 하는 유엔군이 주둔, 군사적으로 대립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과거 여러 회에 걸쳐 타민족에게 유린되었다. 일본의 방위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반도가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발전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제5장 6·25전쟁 종합관찰

첫째, 6·25전쟁은 냉전 하에서 폭발한 국지적 열전이며, 직접 및 간접침략이 복합된 전쟁이었다.

둘째, 내전에서 확대된 국제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전혀 새로운 전쟁이었다. 맥아더는 '전혀 새로운 전쟁'이라고 하고, 공산측은 '내전으로' 미국의 남북전쟁과 같은 양상에, 미국이 개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셋째, 제한전쟁이다.

넷째, 유엔군으로서 첫 번째 시련이었다. 6·25전쟁으로 유엔군이 창설되었으나, 한편 유엔안보리의 가치가 의문이 가는 전쟁이었다.

다섯째,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합지역에서의 충돌이었다. 맥킨, 하우스호퍼 등의 지정학적 견해, 마한 등의 해상권력론적 견해를 시험하는 전쟁이었다.

여섯째, 국내전이며, 현대장비를 갖춘 미군이 게릴라전의 중국군에 고전했던 전쟁이었다.

일곱째, 냉전 하에서의 전략사상, 외교정책의 중요성이 요구되었다.

여덟째. 일본과의 관계 및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친 전쟁이었다. 일본은 유엔군의 중요한 전략기지였으며,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공산당은 탄압을 받았고,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여 주일미군의 출동에 따른 방위의 공백이 발생한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또한 대일강화조약, 안보조약체결, 경제는 전쟁특수로 일거에 재건할 수 있었다. 유엔군의 작전기지, 보급기지 등의 큰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도 아래와 같은 책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朝鮮戰爭/韓國篇 上·中·下』(佐佐木春隆), 1976년-1977년, 原書房.

『防衛大學校紀要』.
『朝鮮戰爭時 美空軍』, (1971년).
『防衛學硏究』(방위대학교방위학연구회 편 발행)

2) 자위대 군사교육기관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및 후지학교[6]에서 전사교양반 등에서 주로 6·25전쟁 전투사를 교육하고 있다. 백선엽 장군을 초빙하여, 그 밖의 학교 및 부대를 포함해서 직접 풍부한 전쟁경험, 특히 전쟁에서의 지휘통솔을 강의한 바 있다.

육상자위대, 항공자위대 간부학교[7]에서는 각각 교육부에 전사실을 두고, 6·25전쟁사를 연구 및 교육하고 있다.

교재 : 『現代戰爭史槪說(上卷)』(육전학회 전사부, 1982년, 육전학회)[8]

이 교재는 제5장에서 6·25전쟁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5장 6·25전쟁 / 제1절 전쟁배경, 제2절 북한의 남침, 제3절 유엔군 반격 및 북진, 제4절 중공군 개입, 제5절 진지전, 제6절 휴전회담과 작전

해상자위대 간부학교에서는 지휘 및 참모과정학생을 대상으로 전쟁지도 차원에서 6·25전쟁 발발이전에서 휴전까지 교육하고 있다. 전쟁지도란 전쟁목적, 개전, 휴전 또는 강화, 동맹, 연합, 기타 전시외교방침의 결정, 특수교전법의 적용, 경제전, 사상전, 선전전, 과학기술전, 국가동원, 선전포고 또는 해제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고통수부와 협의, 결정,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9] 6·25전쟁을 모델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6) 한국의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에 상응하는 군사교육과정.
7) 한국의 육·해·공군대학에 상응하며, 교육대상은 소령급 간부.
8) 『現代戰爭史槪說』 上卷, 陸戰學會戰史部會, 1982, 陸戰學會.

교재 : 『朝鮮戰爭史: 戰爭指導』(三木秀雄, 2003년 海自隊 간부학교)

통합막료학교에서는 통합막료과정학생 및 자위대 간부학교 고급과정 학생에 대상으로 6·25전쟁을 연합 및 합동작전차원에서 교육하고 있다.[10]

교재 : 『朝鮮戰爭統聯合作戰史』(三木秀雄, 2000년, 통합막료학교)

저자는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구도 가운데, 핵전략하에 발생한 최초의 전쟁이며, 유엔 최초의 시련이면서 전쟁이었다. 또한 걸프전의 다국적군의 전쟁지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일본에게는 '주변사태'의 전형적인 사례이자 교훈의 보고다. 6·25전쟁은 제병협동, 연합 및 합동작전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완승전략은 제한전략으로 변화했다"고 책머리에 강조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의 관점에서 6·25전쟁을 고찰하였다고" 부언하고 있다.[11]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개전준비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제2장 개전초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제3장 유엔군 공세이전 및 중공개입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제4장 정전협정 및 일본의 공헌
제5장 연합 및 합동작전론

이하는 제4장의 주요 요지이다.

일본은 미군의 점령하에서 유엔군을 지원하였다. 6·25전쟁 2년차인 1951

9) 三木秀雄, 『朝鮮戰爭史 : 戰爭指導』 2003, 海自隊幹部學校, p. 1.
10) 통합막료학교는 한국의 합동참모대학 수준, 각군 자위대 간부학교 고급과정은 한국의 육·해·공군대학의 고급과정과 같은 수준이나, 교육대상은 중·대령이며, 고급장교의 연합 및 합동 마인드 형성을 위하여 6·25전쟁을 모델로 연합 및 합동교육을 통합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6·25전쟁 전문가인 三木秀雄 교수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다.
11) 三木秀雄, 『朝鮮戰爭統聯合作戰史』, 2000, 統合幕僚學校, p. 1.

년 9월 8일에 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이때, 요시다 수상과 애치슨 국무장관과의 교환공문에서, "한국에 대한 무력침략에 유엔 및 회원국이 대응하고 있으며, 1951년 2월 1일, 총회 결의에 대하여 일본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시설 및 역무를 유엔군에 제공함으로써 유엔의 활동에 중요한 지원을 하였고, 또한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고, 나아가 "유엔 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일본의 시설 및 역무가 계속 필요하며, 다시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강화조약 발효 후에도 유엔군이 극동에서 유엔활동을 할 경우에는, 유엔활동에 종사하는 군대를 일본 국내 및 그 부근에 지원하는 것을 일본이 허용하고, 용이하게 하며, 또한 일본의 시설 및 역무의 사용에 따른 비용이 현재대로 또는 일본과 해당 유엔회원국과의 별도의 합의대로 부담할 것을 확인한다"고 합의했다.

그리고 1954년 2월 19일, 일본정부와 유엔은 「유엔군 지위협정」을 체결하고, 이 가운데 제5조에서 유엔군은 일본에서의 시설을 합동회의를 통하여 합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유엔군은 합동회의를 통하여 일본정부의 동의를 얻어 일본과 미국 사이의 안보조약을 기초로 하여 미국에게 제공되어 있는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

(중략) 일본은 6·25전쟁 당시에도 유엔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지만 휴전협정 이후에도 주한유엔군 후방사령부에 대해서 시설 및 역무 제공을 통하여 극동의 평화유지에 협력하고 있다. 이 유엔군지위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일본 외에,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남아공, 호주, 필리핀, 이탈리아 등이다.[12]

이하는 제5장의 주요 요지이다.

6·25전쟁은 연합 및 합동작전 차원에서 많은 교훈이 되고 있다. 맥아더 장군의 해임으로 해·공군과의 협력이 원만하게 실시되지 못했다. 전쟁기간 중에 축차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통합군으로 기능을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후 개선책이 강구되었다.

12) 위의 책, p. 183.

미국은 6·25전쟁기간 중에는 유엔군으로 전쟁에 참전했으나,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 및 동맹국과의 균열로 소위 유엔 이탈현상이 발생하여, 베트남전쟁에서는 유엔에 전혀 의존하지 않았으며, 프랑스와도 연합작전을 실시하지 못했다. 한국군만 유일하게 6·25전쟁 당시의 은혜를 갚는 형식으로 미군과 연합작전을 실시하였다.

냉전 후, 걸프전에서는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얻었으나 유엔군을 만들지 못했으며 유엔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작전을 실시하였다.

그 후, 유고의 코소보 사태에서는 유엔안보리의 승인이 없이 NATO 및 지원국의 파견부대를 지휘, 다국적군으로서 무력행사를 했다. 이와 같이 미국은 6·25전쟁에서 연합작전의 교훈을 충분히 살리고 있다.[13]

(2) 대학에서의 연구 및 연구자

1) 게이오(慶應)대학

첫 번째 카미야 후지(神谷不二)의 『6·25전쟁 : 미중대결의 원형』[14]을 들 수 있다. 이 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6·25전쟁은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의 발자취에 극히 커다란 족적을 남긴 사건이다. 이것은 전후의 냉전에 하나의 시기를 긋고, 민족통일운동에 하나의 전기되었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공산주의 봉쇄정책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데 반공군사동맹체제의 수립에 커다란 기폭제가 되었다. 한편으로 개전전년 1949년 10월에 성립된 공산중국은, 반미, 반제, 민족해방투쟁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오늘날 보듯이 '미중대결'이라는 국제정치의 중요한 측면은 이 시기부터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6·25전쟁은 또한 남북분단이 고착화되었다. 일본에게는 전후 일본경제

13) 三木秀雄, 『朝鮮戰爭史(統連合)』, 1999, 統合幕僚學校, p. 161.
14) 神谷不二, 『朝鮮戰爭 : 美中對決の原形』, 中央公論社, 1966.

의 재건에 큰 기회가 되었고, 미일안보체제를 촉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다. 6·25전쟁에 대해서 연구할 과제가 많다. 그 이유 하나는 전쟁당시 일본은 군사통치를 받고 있었고, 신문보도도 엄격하게 검열을 받고 있어, 또한 충분한 자료가 없었다. 그 후 6·25전쟁에 관심을 가지게 되자, 한쪽에서는 오로지 미국의 점령정책, 반공정책에 대한 비판, 제국주의, 또는 전쟁정책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산측의 반제국주의, 평화주의, 민족해방투쟁에 비판하는 논리로 접근하게 되었다. 또한 소련과 중국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었다. 그러므로 6·25전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미국측이나 공산측의 어느 쪽이든 공식론이나 정치적 주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이러한 경향의 결과로서 일본에서는 지금도 6·25전쟁을 미국의 의도로 한국이 북한을 공격했다는 논리가 강하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다는 것은 무시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스톤의 『秘史朝鮮戰爭』을 논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에서 보면 너무 지나친 것이 많다. 북한측에 자료는 공식적 견해로서는 그 무렵 한반도에서 『내전유발자의 정체를 폭로하는 문서와 자료』(북한 외무성편 1951년; 비밀출판으로 표지커버에는 池田次朗의 『僞善者の受配』 創文社발간이다), 또한 『事實は語る : 朝鮮戰爭挑發の內幕 : 1960年)』,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북한과학원역사연구소 편, 1961)이 발간되어 미국과 이승만이 북침하였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한국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미국 민주극동정책위원회 편, 1961년) 등의 자료에서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선전문서, 혹은 국민정신교육용이라고 하더라도 6·25전쟁을 북침이라는 당시의 일본 식자들의 의견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Ⅰ. 개전전사 Ⅱ. 해방과 통일 Ⅲ. 전혀 새로운 전쟁 Ⅳ. 휴전 Ⅴ. 6·25전쟁의 의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Ⅴ. 6·25전쟁의 의의에서 「세계정치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냉전의 기본구도, 미국의 군비증강을 논하고 있다. 이어서 「유엔의 영향」에서 첫째, 미국이 6·25전쟁을 유엔군의 이름으로 유엔기를 달고 싸웠다는 사실의 의미를 논하고 있다. 6·25전쟁의 결과에 의해 유엔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

력했던 국제연맹의 과거를 반성하고, 한편 미국도 또한 유엔에 동맹국가와의 일체감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유엔이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유엔의 위신이 높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6·25전쟁은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와 아랍제국이 중립주의로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그 주장이 가끔씩 유엔을 무대로 표명되어 휴전성립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 결과, 유엔에 대한 국제여론이 국제정치에 대해서 실체적인 기능을 했다는 새로운 경향이 나왔던 것이다. 특히, 전쟁 진행 중에 1950년 11월 2일 유엔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결집'이 결의되었다. 이것은 소위, 유엔판의 봉쇄정책이다.

전후 일본의 발자취에서 단독강화와 미일안보체제, 전쟁특수, 재군비의 시작 등을 논하고 있다. 6·25전쟁은 일본의 중요성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일안보체제가 수립된 것은 6·25전쟁이 일본에 미친 영향중에서 그 첫 번째라 할 것이다. 조지 캐넌은 "6·25전쟁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전면적으로 근본부터 바꾸고 말았다. 비무장화하여 군사적으로 중립화하려든 일본의 꿈은 이미 사라졌다"고 했다. 6·25전쟁에 의해서 일본은 결정적이고 명시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반공 군사체제 중심이 되는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전면강화론(全面講和論)이 우세한 상태였다. 그로 인해서 전면강화론이 핵심이 되었던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분열되고 재편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찰예비대 이름으로 일본의 재군비가 시작되어 오늘날 자위대의 기반이 되었던 것은 6·25전쟁 때문이었다.

그렇다하더라도 일본의 재군비라는 국가적 대사업이 GHQ의 지령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토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은 일본으로서는 불행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의 책과 비교해서 특필할 수 있는 것은 오코노끼 마사오(小比木政夫)의 『6·25전쟁』[15]일 것이다. 아래내용은 그의 저서를 요약한 것이다. 서론

15) 小比木政夫, 『朝鮮戰爭』, 中央公論社, 1986.

에서 본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본서는 미국의 6·25전쟁 개입과정을 역사적으로 재검토 했다. 필자의 주요관심은 한반도사태에 대한 미국의 정책입안, 결정, 그리고 실시가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을 거쳐서 다시 새로운 정책의 입안을 필요로 하고, 역사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논하고 있다.
>
> 여기서 제1장 「개입과 철퇴의 상극」에서 단독행동의 개시, 주한미군의 철수, 제2장 「봉쇄정책의 모색」, 제3장 「전쟁의 발발:지상군의 재파견」에서 최초의 반응, 해·공군의 투입, 작전의 확대, 지상군의 투입:전면적 변경, 제4장 「전쟁목적의 확대:북진의 결정」에서 북진을 둘러싼 논의, 새로운 전쟁목적, 북진의 결정, 제5장 「중국의 참전:무위의 모험」에서 북진 후 정세 평가, 중국군의 출현, 재검토의 기회, 중국군의 전면적 개입, 제6장 「정전, 저항, 확대, 벼랑끝 결정」에서 전혀 새로운 전쟁 정군(政軍)지도자 협의, 트루먼과 애트리의 미영회담(원자폭탄 사용을 둘러싼 협의), 유엔군의 철수, 전선의 안정화, 결론에서 점령군의 철수, 한정적 봉쇄, 직접적 군사개입, 북진유혹, 압록강으로 진격, 저항계속의 순으로 논하고 있다.
>
> 그리고 본서에서 "6·25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그 후의 냉전전개에 큰 방향을 결정지었던 것임은 틀림이 없다. 미국정부는 대외 및 국방정책에서 일련의 신중함과 애매함을 일소하고 새로이 대담하고 명확한 행동방침을 결정할 수 있었다. 미국은 자유세계에 대하여 군사력강화를 확고히 했고, 전통적인 동맹에 지나지 않았던 NATO를 미군을 최고사령관으로 하는 통합적인 군사기구로 개편하였다. 나아가 서독을 재무장하였고 일본과의 대일강화를 촉진하여 과거의 적국인 이들 국가를 급속하게 미래를 향한 동맹국으로 탈바꿈 시켰다"고, 6·25전쟁의 국제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개전 50주년을 맞이하여, 2000년도와 2001년도의 게이오대학 지역연구센터(현재 게이오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6·25전쟁에 대하여 연구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구소에서는 '냉전사 국제프로젝트'의 감독을 맡았던 데이비드 울프와, 한국의 백선엽 장군을 초빙하여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그 성과는 아까기 간지(赤木完爾) 편저, 『6·25전쟁 : 휴전50주년의 검증, 한반도내외로부터』이다. 13인의 연구자가 분담하여 집필하고 있다.[16]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 냉전의 기원과 전개
제2부 개전과 소련
제3부 휴전교섭과 그 반향
제4부 열전, 냉전, 핵무기

주관자인 아까기 교수는 '본서가 전쟁의 전체상을 밝힌 것은 아니나, 전쟁의 다면적 이해를 여러 관점에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6·25전쟁 연구가 지나쳤던 부분을 보완하고 연구에 진전에 공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하는 이 책의 주요관점이다.

6·25전쟁은 대관하면 제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미·소 세력권 경쟁과 통일한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반도내부의 대립이 교차했던 전형적인 국제내전이었다. 6·25전쟁은 국제내전이 대규모적이고 노골적인 전개를 나타낸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은 내전이면서 미·중간의 전쟁이기도 했다. 그리고 6·25전쟁은 깊은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냉전이 세계적 문제화되는 계기가 되어 20세기 후반의 국제정세의 기조를 형성하였다. 유럽에서의 냉전은 베를린 봉쇄 후 1949년에 거의 안정화 되었다.

그러나 1949년 10월 중국혁명의 성공, 6·25전쟁의 발발에 의해서 냉전은 일거에 아시아로 확대.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더욱이 경제·정치적 수단으로 싸웠던 냉전은 6·25전쟁을 계기로 군사화 되었다. 그리고 미국

16) 赤木完爾 編著, 『朝鮮戰爭 : 休戰50周年の檢證, 半島の內と外から』, 慶應義塾大學出版部, 2003. 11.

의 주도로 유럽에서 아시아에 걸친 반공군사포위망은 세계적으로 형성되었다. 한편 아시아에서의 6·25전쟁은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 시켰고, 중국은 군사력으로 대만을 해방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후 20년에 걸쳐 미국과 중국간의 대립구도가 성립되었다. 동시에 미국의 인도지나 개입도 6·25전쟁의 영향을 받아 개시되었다. 또한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진로에 강화조약의 조기체결, 미일안보조약에 의한 일본의 서방진영으로의 편입, 전쟁특수로 인한 경제부흥의 시작, 나아가 재군비 등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에 들어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 나아가 1991년 소연방의 붕괴에 따른 냉전의 종결이라는 국제정세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오늘날 두 개의 국가가 병립하고, 1950년대에 형성되었던 냉전상황, 즉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본서에서 유의했던 시각은 전쟁을 둘러싼 국내외의 계기에 관심을 동시에 두면서, 6·25전쟁이 태생했던 상황 추이에 대해서 분석을 심화한 것이다. 최근 6·25전쟁 연구가 촉진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냉전종결의 영향으로 구소련, 공산권, 또한 중국에 대한 자료가 어느 정도로 이용 가능해졌다. 특히 구소련 문서의 공개로, 베드로 윌슨 센터의 '냉전사 국제프로젝트(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의 성과로 대표되는 공산권측의 내부사정에 관한 연구가 특히 개전에 관한 사항이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그러면서 전쟁후반기의 제문제나 남북한의 내부사정의 해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

연구에 즈음해서 첫 번째 문제인식으로서는 전쟁내부의 측면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시했다. 두 번째의 문제인식은 6·25전쟁의 국제적 측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했다. 전쟁에 관련된 소련, 중국, 미국은 각각 6·25전쟁에서 싸웠으면서도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정치에 다양한 형태로 관련되었다.

제2부는 소련과 6·25전쟁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다. 소련자료에서 북한의 내부사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다.

제3부는 개전경위에 비교하여 지금까지 충분히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휴전교섭 및 휴전의 여파를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각각 논의한 것이다.

제4부는 6·25전쟁의 군사작전 및 미국의 냉전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전

쟁발발 전 미국의 정보활동이 소련과의 전면전쟁에 속박되어 동아시아의 동향에 간과했던 사정을 최근 이용 가능한 중앙정보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논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동아시아 냉전의 동태 가운데 위치를 두고, 중국, 남북한, 인도지나에 대한 정책의 내적 연관성을 검토했다. 6·25전쟁이 핵시대의 시작에서 싸웠던 전쟁이고 또한 핵전쟁의 위기를 품고 있었던 전쟁이었으나 6·25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던 제반사항을 검토했다.

2) 호세이(法政)대학

호세이대학에서는 2001년 시모토마이노부오(下斗米伸夫)교수가 류쿠(琉球)대학 전임강사로 소련외교사를 연구하는 김성호(金成浩)의 협력으로 『6·25전쟁의 수수께끼와 진실』(원저 ; 토르크노프) 번역, 출간하였다.[17] 본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서는 6·25전쟁은 북한에 의한 한국에 대한 침략이었으나, 확실한 논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역사가들이 북한의 침략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해왔던 것을 평양과 모스크바와 북경 간에 주고받았던 전보와 서한에서 6·25전쟁은 김일성과 스탈린, 모택동 3자에 의한 공동모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저자 토르크노프는 오늘날 북한의 비참한 현실은 6·25전쟁의 논리적 귀결로 보고, 본서에 필적할 정치학 교과서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 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스탈린, 남한의 침공을 두려워하다.

1945년 해방 후부터 1949년 3월 김일성과 스탈린과의 회담이 있기까지, 스탈린은 김일성이 말하는 무력통일, 해방전쟁에는 신중했고 오히려 남한으로부터의 침공을 경계했다.

17) トルクノフ, 『朝鮮戰爭の謎と眞實』, 下斗米伸夫, 金成浩 역, 草思社, 2001.

제 2 장 김일성은 남한해방을 허가요구, 스탈린은 주저하다.

김일성은 통일을 염두에 두고 부분적인 남침을 할 수 있도록 스탈린의 승인을 부탁했으나, 스탈린도 소련대사관(평양)등도 당초에는 소극적이었다. 미국은 한국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고, 일본군을 파견하여 개입할 것이다.

제 3 장 남침의 축복을 얻다

1949년 10월, 중국혁명의 성공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1950년 4월 모스크바 회담에서 남침에 동의했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소련의 참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모택동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4 장 북한의 남한해방계획에 관한 중국입장

중국공산당은 혁명을 성공했으나 대만 해방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실제로 김일성의 한반도 무력통일에 요구에는 신중했었다. 그러나 1950년 4월 스탈린과 김일성의 회담이 있은 후, 중국측의 자세가 변화되어 갔다. 모택동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일본이 개입하고 일본이 남한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1949년 5월 모택동은 소련대표에게 '만주의 조선인 2개 사단은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 미군 철수 후에 일본군이 들어와서 남한이 북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일본군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라'라고 했다.

제 5 장 전쟁준비

스탈린이 침략계획을 지지했던 1950년 4월 회담 이후 북한이 남침준비가 급속히 정리되었다.

제 6 장 전쟁의 초기단계

1950년 6월 25일 새벽 6·25전쟁이 발발했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을 침략자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27일 한국지원을 결정하고,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 출동을 명령했다. 28일에 북한은 서울을 해방했다. 7월 8일 맥아더 원수가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여 서울을 탈환했다. 나아가 10월 1일 한국군은 38선을 돌파 북한군은 대폭적

으로 후퇴를 했다. 9월 29일 김일성은 '우리는 최후의 피한방울까지 싸운다! 적이 38선을 넘어설 경우 소련의 직접 군사원조나 중국 등의 국제의용군을 요청한다'는 요구를 했다.

제7장 전쟁초기 단계에서 중국의 역할

중국 지도부는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중국 인민지원군이 10월 25일 압록강을 넘어 참전한다. 그때까지 중국은 개입여부를 내부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9월 21일 중국은 미군의 전투능력은 일본군 이하이며 미군은 격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월 24일 소련주재 중국대사는 그로미코에게 미군은 질적으로 좋지 않다. 일본군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제8장 소련은 중국의 참전을 요구하다.

북한의 전황이 절망적으로 악화되자 스탈린은 1950년 10월, 중국에 파병을 요구했다. 중국은 실제로는 신중했다. 그럼에도 결국 모택동은 이를 지지하고 인민지원군의 참전을 결정하게 된다.

제9장 중국의 6·25전쟁 파병, 성공에 대한 현혹

중국군이 지원병으로서 참전, 전투에 중심이 되어, 다시 북한군이 우세하게 되었으나 전선은 곧 교착상태에 빠져 일진일퇴를 반복했다

제10장 승리의 짧은 환상과 공황의 확산

중국지원군의 지원도 1951년 1월까지에는 교착상태에 들어갔고, 대립은 계속된다.

제11장 휴전교섭 개시

개전에서 1년 후 전선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택동과 김일성은 외교적 수단으로 휴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 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에 소극적이었다. 휴전교섭에 들어갔으나 군비의 공급문제로 스탈린과 모택동의 관계는 악화되어 갔다. 스탈린은 모택동에게 휴전회담 장소를 개성으로 변경하도록 강요했다.

제12장 휴전교섭-모스크바, 북경, 평양의 책략

1951년에 시작된 휴전교섭에서 중국, 소련, 북한, 각각의 입장은 차이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유엔군과의 교섭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제13장 스탈린, 전쟁계속을 주장

동맹국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 가운데서 스탈린은 휴전을 원하는 중국에 대하여 항전을 하도록 계속 지시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소련의 의도가 있었다. 1952년 1월 16일 북한의 박외상은 팽덕회에게 '조선인민군이 평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쟁계속은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52년 8월 20일 스탈린은 주은래에게 '미국은 한국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 전쟁계속을 강조했다.

제14장 모스크바의 한반도정책 변경과 동맹국들의 만족

결국 스탈린이 1953년 3월에 사망하기까지 소련은 전쟁을 계속하는 정책을 취했다. 스탈린 사망 이후 후계자는 휴전에 동의하고, 7월말에 미국과 유엔군, 중국과 북한은 휴전협정에 합의했으나, 특히 중국과 북한의 희생은 다대했다.

저자는 '맺는말'에서 6·25전쟁의 교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6·25전쟁은 두 개의 이데올로기 및 정치체제가 화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대립의 결과였다. 쌍방 진영간에는 강대국의 야심과 관련된 전쟁이었다. 쌍방 진영에는 핵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정면충돌을 회피하는 나름대로의 신중함을 보였다. 동시에 지배자들 가운데는 세계적인 파국은 회피하면서도 자기의 영향력을 세계에 확대할 수 있다고 감지한 경우는 이러한 위험에 도박을 걸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항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것이다.

스탈린은 북한 공산주의자에게 혁명을 완수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은 미국이 이러한 내전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 지도자의 예측은 빗나갔다. 이러한 오산의 대가는 수백만 병사와 평화로운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지역 그리고 세계적 국제정세에 장기간에 걸쳐 마이너스를 초래했다. 그리고 한반도는 오늘날까지 지구상에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6·25전쟁은 소련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 이익에도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쳤다. 모스크바와 워싱턴간의 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중국과 소련사이의 동맹에도 알력이 생겼다. 소련 스스로는 잔학한 참살에서 몸을 숨기면서 중국을 한국에서 싸우게 하였고, 더구나 소련제 무기대금까지 징수한 것에 중국은 분노했다. 이 전쟁 때문에 소련과 한국의 관계 도 폐쇄되었다. 소련은 남한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의 가장 중요지점에서 미국의 군사주둔을 감내해야 했다. 그리고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와 정상적인 호혜관계를 확립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미국은 소련에 대하여 극동에서 행동의 자유를 박탈했지만, 소련이라는 위협국이 다시 태동하게 됨으로서 대립하게 되었다.

소련은 북한과 관계는 유지했으나 정치·경제 및 전략적으로 무거운 짐을 안게 되었다. 소련은 이러한 국면을 전환하려해도 북한이 소련의 국제적 위신을 손상시켰고, 소련의 자원을 고갈시켜 각 국가와의 국경긴장이 발생하면서 스탈린 모델에 계속 매달려야 했다.

6·25전쟁은 중국에게는 한층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오랜 동안 국가로 승인을 받지 못했고, 유엔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중국은 미국의 기지에 포위되었고, 미국은 대만을 중국본토를 노리는 미국의 불침항모로 변화시켰다. 이에 중국은 소련에 어쩔 수 없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한 양국의 동맹은 중소대립을 낳게 되었다.

현재 북한의 비참한 현상은 6·25전쟁의 유산의 논리적 귀결이다. 거꾸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정치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이 분쟁을 이용하여 왔다. 바라는 것은 이러한 일차적 문서에 입각한 6·25전쟁의 역사가 과거의 비극적 잘못이 아태지역에서 21세기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3) 동경대학

동경대학 법학부의 이가라시다케시(五十嵐武士) 교수는 그의 저서[18]에서 '일본이 국제냉전의 진행, 특히 6·25전쟁의 충격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18) 五十嵐武士, 『對日講和と冷戰-戰後日米關係の形成』, 東京大學出版部, 1986.

다루고 있다. 그리고 위의 책 가운데, 「6·25전쟁과 일본공산당」이라는 제목에서,

> 1949년 1월 총선거에서 일본공산당은 중의원 의석을 일거에 35석까지 늘렸다. 일본공산당은 당시 평화수단으로써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평화주의를 제창하고 있었으나, 전투적인 전술로 전환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이라사건(平事件), 시모야마(下山), 마츠가와(松川), 인민전차 사건 등을 연이어 일으켰다. 도쿠다큐이찌(德田球一), 노사카산죠(野坂參三) 등 공산당 간부는 동경주재 소련대표부에 소환되어, 일본각지에 혁명조직을 설치, 비밀지하활동의 혁명운동가를 배치하여 불법활동을 개시할 것을 지시받았다. (중략) 소련이 일본공산당에 국제냉전의 주체로 나설 것을 지시한 것은 북한, 중국, 소련이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1949년 3월에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여 침략계획을 전했다. 그 결과, 스탈린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되고, 중국의 원칙적인 찬성에 의해 승인했다.
>
> 또한 중소(中蘇)공산당은 일본공산당과 연계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리하여 중국의 주은래를 통하여 일본 공산당에 극동코민포름 설치를 정식으로 통보하고, 일본국내에는 소련대표부의 G기관, 재무부, 일중(日中)합동활동지령부, 그리고 일본공산당 내부의 담당기관이 이 계획하에 설치되었다. (중략) 1950년 4월 하순 조선공산주의 동맹회의에서도 8월 북한군의 남침을 가정하여 게릴라전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다.[19] 5월 30일 민주민족전선에 의한 궐기대회가 열리고, 공공연히 점령정치 반대운동을 전개, 전투적으로 실천했다.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극동코민포름은 공산당에 지령 제172를 발령, 일본전국에 송전시설을 파괴하여 경제활동을 마비시키고, 반공세력을 타도, 요시다 정부 및 GHQ탄압에 대응할 준비태세를 촉구하는 총궐기를 촉구했다. 50만명을 참가시켜 권총 12만에서 13만 정을 준비하여,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파견되어 일본본토에 군사적 공백이 발생하는 정세를 이용하여, 6·25전쟁에 호응하는 형태로 일본국내에서 소요를 야기, 공산당에 돌격대를 편성, 주요공업지역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10월 혁명 계획

19) 林建彦, 小林敬爾 역, 『朝鮮戰爭と中蘇關係』, コリア評論社, 1976, p. 132.

을 세웠으나 결국은 소규모, 산발적인 소란으로 끝났다."

이가라시 교수는 나아가 「6·25전쟁과 미일교섭」이라는 제목에서,

> 중국군의 개입, 11월 26일 대공세로 인하여,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극적으로 변화, 11월 30일, 트루먼 대통령은 원자폭탄 사용을 시사, 일본의 용군의 필요를 발언하고, 12월 초, 달레스는 일본에 대하여 군사적 침략이 예상될 경우에는 자위의 관점에서 일본군 창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중략) 달레스는 일본에 대해서 한국의 전황이 긴박함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에 재군비를 주장하고, 미국의 국방성과 같은 중앙기구의 창설, 지상부대에 의한 협력, 나아가 일본헌법개정의 가능성도 타진하였다. 그 결과 1951년 월 3일에는 중형전차를 포함하여 무기를 공급, 2월 9일에는 10개 사단을 창설할 무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3월 15일에는 경제단체 연합회의 미일 경제제휴 간담회에서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특수협력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일본을 아시아의 공장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동경대학(사회과학 연구소)

와다하루끼(和田春樹)교수는 그의 저서 『6·25전쟁』[20]에서, 6·25전쟁 개전 전후의 상황을 중국, 소련, 북한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하여 4개국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일본공산당, 재일한국인 문제 등을 포함하여 연구하고 있다. 그의 이론적 근거는 미국 부루스 커밍스의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의 견해를 참고하여, 소련에서 공개된 자료를 이용해서, 방위대학교의 사사키하루다카 교수, 게이오대학의 카미야, 오코노키, 아카키 교수와 다른 견해를 전개하고 있다.

1950년 2월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맥아더와 6·25전쟁을 공모했다는 주장, 중국을 상실한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동맹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중공업

20) 和田春樹, 『朝鮮戰爭』, 岩波書店, 1995, 2002, pp. 97-100, p. 370.

경제기지와 한국과의 재통합을 우려했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하여 동경대학의 이가라시 다케시 교수[21]는 GHQ문서에서 「일본공산당과 소련의 일본대표부와의 관계」를 특별히 다루고 있다. 그것은 1949년 12월, 일본공산당 간부들이 소련대표부로 불려가서, 일본혁명노선을 관한 지령을 받았다. 그리고 김일성이 재일조선인 등을 이용하여, 군정을 받고 있는 일본에서 공산혁명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설이다.

와다하루키 교수는 이러한 이가라시 교수의 설에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6·25전쟁의 개시는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일전략으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공격을 하도록 하는 전략과 같은 논리이다. 마지막의 에필로그에서 '1994년 6월 2일 러시아가 한국에 제공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와다하루키 교수는 이 자료에 의해서 본인 집필한 본론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하는 와다하루키 교수의 설을 요약한다.

> 6·25전쟁은 휴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휴전협정은 평화조약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휴전선을 두고 대치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냉전종식, 세계냉전 종말이 도래 했던 1990년대 초, 북한을 지지했던 소련, 북한에 참전했던 중국이 연이어 한국과 수교가 수립되면서,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핵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긴장하여 새로운 6·25전쟁이 하나의 가정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시대착오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
> 6·25전쟁은 남북한외의 미국과 중국, 영국, 호주 등 18개국이 참전했다. 소련과 일본은 참전국은 아니지만 정도의 차는 있으나 전쟁에 깊이 관여된 준참전국이라 해도 좋다. 6·25전쟁에 대해서 공통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남북한, 미국과 중국, 소련과 일본 그리고 호주 그밖에 자료, 증언, 연구 노력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북한 전사의 문맥에서 본 6·25전쟁의 연구이며 한국 측의 분석은 충분하지 않다. 1990년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21) 五十嵐武士, 『對日講和と冷戰-戰後日米關係の形成』, 東京大學出版部, 1986.

되었다. 1990년 6·25전쟁 개전 4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직후 미국의 연구자 브루스 커밍스의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제2권)이 간행되었다. 1984년, 그의 집에 기거하면서 워싱턴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 한국에서 온 유학생과 더불어 반년을 걸쳐서 이를 탐독했다. 커밍스가 자국의 전쟁을 비판한다는 입장에서 6·25전쟁을 철저히 연구한 그의 연구에 대해서 동료로서 친구로서 대우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1990년에 중국에 가서 6·25전쟁에 참전했던 조선인 정치공작원 주홍성(朱紅星)의 의견도 들었다. 러시아에서도 중요한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본서는 개전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 전쟁의 과정에서 휴전 직전까지 논하고, 이어서 총괄을 했다. 나아가 러시아 옐친정부가 제공한 자료가 1993년 7월 20일에 공개되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기 위하여 6·25전쟁을 완전히 과거로 해서, 화해가 실현되기 위하여 냉정한 논의를 하는데 하나의 기초를 제공하고 싶다면서 본서를 발표했다.

(3) 진보적 관점에서의 연구 및 연구자

1) AA총서2, 『현대조선론 : 조선전쟁론 등』(勁草書房, 1966)[22]

본서는 제1장 개론에서 「한반도문제의 견해 : 일본인의 입장」, 「한국전쟁 前史(1945년-1950년)」, 제2장 한국전쟁론에서 「한국전쟁과 미국」, 「한국전쟁과 일본」, 제3장 한반도의 사회주의 건설을 주제로 하여, 「천리마 운동, 청산리, 대안의 계획」, 「조선에서의 자력갱생의 이론과 실천」, 제4장 한반도를 주제로 해서, 「현대조선의 인간상」, 「군사지원에 나선 미국의 한국지원과 일본지원의 역할」, 제5장 전후 북일교류 소사에서 「북일관계사 연표」를 1945년 8월~1966년 8월까지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전쟁과 일본」에서 6·25전쟁에 강제 인력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논하고 있다. 1. 6·25전쟁과 경찰예비대, 2. 미국에서의 일본군 모집

22) AA叢書2, 『現代朝鮮論 : 朝鮮戰爭論など』, 勁草書房, 1966.

논의, 3. 일본인 전쟁참가, 4. 주일 한국인 의용군, 5. 6·25전쟁과 점령군 노무자, 6. 일본인에 의한 병력물자 수송, 7. 각종 노동자의 동원, 8. 간호사 소집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본서 가운데. 저자 후지시마우나이(藤島宇內)는「중국에서 본 6·25전쟁」이란 논문에서 6·25전쟁은 조선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 협력해서 미국제국주의를 격퇴한 것이라고 했다. 일본인으로서 중국측 즉 공산측의 논리를 주장한 것이다.

2) 역사과학평의회편집, 『歷史評論 : 特輯, 朝鮮戰爭の史的糾明』(校倉書房, 1980)[23]

본서는 6·25전쟁 발발 30주년을 즈음하여 편찬된 것이다. 즉 시기적으로 오키나와반환, 한일국교수립,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베트남전쟁 종결, 중동전쟁 발발 등, 국제정세에 커다란 변화의 시기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4편의 논문을 싣고 있다. 이어서,「6·25전쟁에 관한 문헌고찰」(필자 : 카스야겐이치(糟谷憲一))이라는 제목으로 16종류의 6·25전쟁 관계문헌을 해설하고 있다. 공산주의 선전논리가 강한 책자 위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하지 않으면 강하게 책자를 비판하는 논리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해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4]

가. I.F 스톤, 內山敏역, 『秘史朝鮮戰爭』(原著, 1952년, 初譯=新評論社, 1952년, 改譯)=靑木書店, 1966년)

---

23) 歷史科學協議會編集, 『歷史評論 : 特輯, 朝鮮戰爭の史的糾明』, 校倉書房, 1980, 4편의 논문은「朝鮮戰爭の世界史的意義 ; NSC68を中心として」,「朝鮮史における朝鮮戰爭」,「朝鮮戰爭と日本獨占資本復活」,「朝鮮戰爭と日本再軍備」등이다.

24) 시기적으로 1980년은 미·소 냉전의 격화기에 해당된다. 공산권의 6·25전쟁에 관한 일차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시기이다. 일본의 진보단체에서는 북한의 6·25전쟁 관련자료, 미국내에서 제기되었던 미국 도발설 등의 서적류를 번역·출간함으로써, 반미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는 선전자료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6·25전쟁에 관한 연구가 처음으로 본격화 되었던 것은 이 책에서 비롯된다. 6·25전쟁이 진행 중이었다. 저자는 미국, 유엔의 기록문서와 미국과 영국의 신문기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정부의 공식견해인 북한에 의한 기습공격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반증을 제시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오히려 개전은 미국과 한국이 일으킨 것이라고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맥아더의 전쟁지도는 중국군 개입을 초래하여 중국과의 전쟁으로 확대하려고 했다는 것과 맥아더와 트루먼의 대립, 미국에 의한 휴전교섭의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나. 미국민주극동정책위원회 편, 中川信夫 역, 『朝鮮戰爭は誰が起したか』(月曜書房, 1952년)

6·25전쟁은 이승만 정권이 미국의 협력으로 도발하였으며, 전체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미국의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6·25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에 대하여 답하기 위하여 자료를 편집하고 있다. 이 자료는 북한 외무성의 '조선에서 내전도발자의 정체를 폭로하는 문서와 자료' 및 미국의 간행물과 신문을 활용하고 있다.

다. 북한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평양외국문 출판사, 1961년)

이 저서는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민족해방전쟁인 동시에 미국과 이승만 일당의 반동적 지배로부터 남반부 인민을 해방하여,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주혁명역량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전(全)인민적 국내혁명전쟁이었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쪽은 미국과 이승만 일당의 침공이었다고 한다. 그 구성은 제1장에 미국과 이승만의 침략전쟁준비에 대하여 개설한 다음, 전쟁의 전과정을 4개 기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그 후 1972년 사회과학역사연구소 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지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전3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가 있다.[25]

25) 일본의 진보단체에서는 북한의 선전간행물도 번역하여 반미자료로 활용하였다.

라. 神谷不二, 『朝鮮戰爭-米中對決の原形』(中公新書, 1966)

6·25전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공산측의 공식적인 발표문이나 정치적인 주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정책에 관한 평가, 6·25전쟁은 중국혁명의 자극을 받아, 소련이 지시하는 아시아 지역공산당의 무력봉기방침에 입각하여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 민족해방전쟁이며, 개전은 소련과 북한과의 공동결정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당연히 비판이 필요한 책이다.[26]

마. D. W, 콘디, 陸井三朗 역, 『朝鮮戰爭の歷史』(태평출판사, 1967, 그 후 『現代朝鮮史. 第二卷』)

6·25전쟁 전기간을 대상으로 전쟁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전쟁원인을 규명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승만 군대를 패주하도록 하게 만들어, 미국과 한국의 특별하게 기획된 전략이 존재한다. 이 전쟁은 미국의 침략전쟁이 틀림이 없다고 했다. 이 책에서는 미국이 일축하고 있는 세균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27]

바. 민족문제연구회 편, 『朝鮮戰爭史-現代史の再發見』(コリア평론사, 1967) 임영수(전 남로당 지하조직 간부)

이 책은 한국과 미국이 6·25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에 부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통일선거를 하여 평화통일을 하면 김일성은 최고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정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병(私兵)인 인민군으로 무력통일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은 소련, 중국, 북한간의 무력통일을 하는데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

3) 진보언론에서의 연구동향

하기와라 료우(萩原遼)의 『6·25전쟁 : 김일성과 맥아더의 음모』[28]

26) 1966년에 발표한 카미야후지(神谷不二)의 『朝鮮戰爭』은 그 당시까지 진보단체의 6·25전쟁 관점과는 달리, 전통주의 관점을 확립한 게이오 대학 교수이다. 이러한 저서는 진보단체와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대상이 되었다.

27) 미국에서 발간된 수정주의 관점의 책을 번역하여 반미자료로 활용하였다.

하기와라 료우의 책은 탈냉전 이후에 출간된 것으로, 위의 1), 2)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냉전기간 중 발간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저자의 일반적인 성향이라면 북침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라도 펼 수 있는 경력의 소유자이다.[29] 이 저술은 6·25전쟁 당시 북한의 내부문서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문서는 현재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으며, 1977년부터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미국이 1950년 6·25전쟁에 개입했던 당시, 북한에서 탈취한 문서가 약 160만 쪽이나 되는데, 저자는 2년 8개월에 걸쳐 통독하면서 저술한 것이다. 이 가운데 북한군 제6사단의 남침계획을 비롯하여 인민군총참모부의 극비문서, 김일성의 극비명령 등을 입수하여 정리하였다. 이 결과, 저자는 6·25전쟁은 북한이 장기적이고 주도면밀한 준비 끝에 모략적으로 남한을 무력으로 공격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저자는 6·25전쟁이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진로에 중요한 관련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연구, 저술하였다.

김일성이 은밀히 추진했던 6·25전쟁의 음모는 맥아더 극동사령부의 정보팀에서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맥아더의 대모략(大謀略)에 완전히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6·25전쟁을 김일성과 맥아더의 합작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6·25전쟁의 해석에서 새로운 관점이라 할 수 있다.[30]

이 책을 통하여 저자가 강조한 것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6·25전쟁이 지금의 남북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은 과거 피

28) 萩原遼, 『朝鮮戰爭 : 金日成とマッカーサーの陰謀』, 文藝春秋, 1997.

29) 저자는 오오사카 외국어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 1969년에서 1988년까지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 '赤旗'의 기자, 1972년에서 1973년까지 평양특파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30) 여기서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은, 기존의 진보단체 연구는 한국선공설, 한미공모설이 주종을 이루었다면, 공산권문서가 공개되는 시기 이후부터는 6·25전쟁을 북한의 선공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산권과 미국의 공통책임론을 대두시키고 있다. 특히 하기하라료우(萩原遼)는 그의 저서에서 '김일성의 소모략(小謀略)이 맥아더의 대모략(大謀略)에 이용당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를 흘리며 싸웠던 소련과 중국과는 화해하고 국교를 맺으면서 북한과는 같은 민족이면서 왜 화해가 되지 않는가'에 의문을 갖고, 이러한 화해의 걸림돌이 6·25전쟁이라고 본 것이다. 북한이 6·25전쟁을 미군과 한국에 의한 침략전쟁이라고 허위로 고집하고 있는 것이 화해의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다.

하기와라가 지적했듯이 북한이 미군과 한국에 의한 북침을 주장하는 한 남북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중요한 논조를 요약한다.

제11장 김일성의 모략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다. 자신이 일으킨 전쟁을 남한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역으로 모략하고 있다. 김일성은 전쟁 개시 후, 최초의 연설에서 그는 어느 정도 남침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개전 다음 날 1950년 6월 26일, 오전 8시부터 라디오 방송을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승만 괴뢰 군대는 6월 25일, 38선 전역에 걸쳐 전면적인 북침을 개시했다. 용감한 공화국 경비대는 적의 침공을 맞아 가혹한 전투를 전개하면서 이승만 괴뢰 정부군의 침공을 좌절 시켰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현정세를 토의, 인민군에게 결정적인 반격을 개시하여 적을 소탕하도록 명령했습니다.(이하생략)"[31] 여기서 38선 전역에 대한 남으로부터의 공격은 허위이며, 만약 남으로 공격이 있었다하더라도 극히 소규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실로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전면전쟁을 발동한 것이다.

제12장 미국의 대모략

미국은 김일성의 남침기도를 알고 있었고, 북의 침입을 알고도 모른 체 했다. 맥아더는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담당으로 북한의 공격이 임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극동군은 북한관련 스파이 전문기관을 1949년 6월에 만들어 북한의 기관 및 군 핵심까지 침투시켰다. 한반도 담당은 KLO(Korean Liaison Office)로 약칭되는 한국연락사무소이다. 이것이 미극동군사령부가 1949년 6월 서울에 만든 스파이 기관이다. KLO의 임무는 북한기관, 군 및

31) 萩原遼, 위의 책, pp. 275-276.

산업기관에 침투하는 것이었다. KLO는 정보기관이면서 G2, GHQ, FEC, 한국에서의 모든 정보조직 사이에 연락을 담당하였다. 1949년 6월 1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1년간, KLO가 북한에 잡입된 스파이들로부터 정보를 접수한 것은 1,915건이었다. 1950년 1월부터 5월까지 KLO문서는 50건, 정보를 보낸 스파이는 55명이었다. 북한에서 암약하였던 스파이는 100명이 넘었을 것이다.

4) 진보정당에서의 연구동향

야마자키시즈오(山崎靜雄)의 『사실로 말하는 6·25전쟁 협력의 전용』[32]

이 책이 나왔던 배경은 냉전후 미일안보체제를 둘러싼 정치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1990년대 들어 미·소 냉전해체로 소련이라는 위협이 사라진 후, 자위대의 역할축소와 미일동맹 해체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주변에서는 1994년 북한의 핵위기, 1996년 대만총통선거전 중국의 대만근해에서 미사일 발사훈련과 관련된 중국위협론 대두, 특히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전쟁개입, 이에 따른 미국과 일본의 주변사태를 위한 양국의 방위협력 논의가 크게 확산되었다. 이 책의 논조는 '6·25전쟁은 북한에 의한 침략이었다. 또한 미국의 남북전쟁과 같은 한반도의 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개입했다. 미국은 일본에게 전쟁협력을 강요하였고, 요시다 정부는 미국에게 복종을 선언하여, 미국의 전쟁에 협력함으로써 전쟁에 말려들 뻔했다. 따라서 미·일 가이드라인 관련법[33]은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는 미군에 일본이 협력함으로써 전쟁에 말려들게 만드는 법이다'라는 것이다.

다음은 이 책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였다.

---

32) 山崎靜雄, 『史實で語る朝鮮戰爭の全容』, 本の泉社, 1998.
이 책의 저자는 28년간 국회에서 외교, 안보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일본공산당 중의원 비서이다.

33) '주변사태안전확보법'은 1999년 5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제1장 미국의 개입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이 38선을 돌파함으로써 6·25전쟁이 발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째 되는 해다. 이 전쟁은 소련의 스탈린이 승인하고 김일성이 계획한 군사행동이었다. 이 전쟁은 북한의 군사침공으로 시작된 내전(內戰)이다. 북한에 잘못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타국의 내전에 군사개입한 미국도 불법성을 면하기 어렵다. 일본도 점령통치를 받으면서 평화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반도의 내전에 일본인을 동원하고, 협력시킨 것이다. 일본이 북한의 무력공격을 받았다면 별개의 문제가 되지만, 일본은 무력공격을 받을 우려가 없었는데도 조선인의 생명을 앗는데 협력했던 것이다. 미군주둔을 인정하는 한, 미군이 전쟁에 출동하면 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6·25전쟁 당시 일본의 전쟁협력의 교훈에서 도출하면, 현재의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6·25전쟁 기간 중에 일본인은 강요에 의해서 전쟁협력을 했다.[34]

미국은 미군 60만과 한국군 200만을 동원, 유엔을 종용하여 소위 유엔군을 편성하는데 성공했다. 유엔기는 7월 25일 GHQ사령부가 위치한 동경 제일빌딩 옥상위에 미국기와 함께 게양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무력침공을 유엔헌장 제39조를 기초하여 '평화파괴'로 인정하고 '적대행위 중지', '38선 이북으로 즉각 철수'하라는 결의 제82호를 채택했다.

6월 27일에는 결의 제83호를 채택, 이 근거에 의해서 유엔회원국으로부터 병력제공을 요구하였다. 이 방법은 유엔헌장 규정과는 다르다. (중략) 유엔헌장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근거로 하여 병력제공을 하는 국가는 안보리와 특별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주한유엔군의 경우는 특별협정의 체결도 없이 창설하였다. 정규 유엔군이 창설되지 못한 이유는, 유엔헌장 제47조의 근거로 설치하여,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대리자'로 구성되는 군사참모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35]

---

34) 山崎靜雄, 『史實で語る朝鮮戰爭の全容』, 本の泉社, 1998, pp. 10-12.

유엔군의 지휘권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두고 대립이 대립되었다. 이미 일본의 점령군 제8군이 한국으로 투입되고 있었다. 유엔안보리는 7월 7일 유엔군 창설과 미국에 지휘권을 부여하는 결의 제84호를 채택했다. (중략) 7월 7일 결의 채택에 앞서,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군의 군사행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한국지원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상정했으나,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유엔의 제안이 거절되고, 미국은 유엔군 창설에 성공, 지휘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미 7월 7일 결의 제84호를 채택하기 전에 이미 미군부대를 전개하였다. 이것은 6월 27일 안보리 제83호를 근거로 하여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였다.

제 2 장 일본정부의 선택과 의도

GHQ는 일본으로 하여금 미군에게 전쟁협력을 명령했다. 최초의 명령은 GHQ지시를 받아서 해상보안청 제7관구에 북큐슈를 엄중 경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맥아더는 군수품, 역무 조달, 항만사용, 선박동원, 간호사 동원, 상륙작전 지원을 위한 기뢰소해에 동원시켰다.

요시다 수상은 1950년 7월 14일 제8회 국회 시정연설에서, "6·25전쟁은 공산세력의 위협이 이미 일본 주변을 엄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하고, 일본이 주일미군의 출격과 군수지원 등 전쟁협력을 정당화하려던 것이 요시다의 기본노선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난폭한 논리다. 인접국이 무력분쟁이 있어, 일본이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일본도 전쟁에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단락적인 주장이다. 이것은 주일미군의 출격과 전쟁협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임에 틀림없다.

북한이 남한을 무력공격을 한 후, 일본을 무력공격을 한다는 움직임이나 분석도 없었다. 더구나 전쟁의 성격도 한반도내에서의 내전이다. 따라서 일본주변이 위험하다고 해서 일본이 자진하여 전쟁에 협력할 성격의 전쟁이 아니다. 물론 일본과 한국은 거리로는 근접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결정하고 전쟁협력에 나서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또한 요시다는 공산주의 적대시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표출이 전쟁협력이었다. 이것은 물론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선택

35) 위의 책, pp. 12-15.

이었다.[36]

전쟁이 격화될수록 일본 국민들에게 전쟁협력도 더욱 강화되었다. 일본 외무성은 1950년 8월 19일 『6·25전쟁에 대한 입장』[37]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공산주의와의 사상전을 내걸었던 일본정부의 투쟁선언으로, 미국에 추종해야 한다는 요시다 정권의 선택이며, 국민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전쟁에 협력해야 한다는 선전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아무리 전쟁협력을 정당하다고 주장해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1) 6·25전쟁은 북한이 군사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했으나, 그 성격은 어디까지나 내전, 내란이었다. 요시다 수상도 내전이라고 답변했다(1950년 7월 16일 중위원본회의). 타국의 내전에 개입하는 유엔헌장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규명도 없이, 소련이 결석한 안보리에서 유엔헌장의 규정에 없는 유엔군을 창설하여 38선을 돌파는 결정한 것이다. 일본의 전쟁협력은 정부의 주장이 어떠해도 내정간섭에 대한 협력이었다.

(2) 6·25전쟁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일본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일본의 자위와는 관계가 없었다. 일본이 전쟁협력을 해야 할 성격은 아니었다.

(3) 일본의 전쟁협력은 전후 출발점에서 일본외교의 과오였다. 6·25전쟁협력은 일방의 편파적인 외교방침을 선택한 것이다. 전쟁협력으로 일본정부는 공정하고, 중립, 자주외교를 포기한 것이다. 이것이 그 후 자주성이 없는 대미종속외교의 출발점이 되어, 어느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상적인 외교전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4) 이미 일본에는 전쟁포기와 평화원칙을 명확하게 밝힌 헌법이 발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주일미군이 북한과 전쟁을 하더라도, 유엔군이 참가해도 일본의 행동은 헌법에 따라야만 했다.[38]

외무성 성명의 목적은 일본이 6·25전쟁에 직접적으로 협력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며, 나아가 미국에 종속노

36) 위의 책, p. 42.
37) 「朝鮮の動亂とわれるの立場」.
38) 위의 책, p. 46.

선을 선택함으로써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위해서 외무성 성명에서는 세계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양분하여, 후자는 하늘이 내려준 것으로 미화하고 있다.

3. 연구내용의 변화 및 발전 : 냉전기간, 냉전종결 후의 변화, 장차연구

(1) 연구내용의 변화

6·25전쟁사 연구는 관련국의 비밀문서 공개로 시간이 갈수록 진척되고 있다. 특히 구소련 관계문서가 공개되면서부터 더욱 충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공개와 함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된 『한국전쟁』은 일본, 미국에서 등에서 번역되고 있다. 토르크노프, 주건영(朱建榮), 와타하루키(和田春樹)의 저서도 신자료에 의해서 연구된 것이다. 공산권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균형적 연구가 진행되어 일본에서도 한국의 북침설이나 미국의 음모설, 한미공모설 등이 수그러들고 있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국교정상화로, 중국, 러시아에서 6·25전쟁에 관한 생각도 변화가 보인다. 개전책임론도 스탈린이나 모택동은 북한 김일성의 간절한 소원에 응했다는 견해다. 즉 3자공모설 대신에 김일성 주도설이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의 코민테른이나 코민포름에 의한 세계 공산주의론의 영향을 지우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 점은 동경대의 이가라시 교수나, 와타하루키 교수도 지적하고 있다.

6·25전쟁을 이승만과 맥아더의 공모에 의한 미국의 음모였다는 설은 공산권 문서공개 이전에는 일본에서도 강하게 주장되었으나 설득력에 문제가

있다.

6·25전쟁 휴전 이후 일본과 관련되는 국제관계의 연대기와 상관하여 연구경향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950년 6월 25일;전쟁발발, 7월;일본의 경찰예비대 창설, 1952년;강화조약, 1953년 7월;휴전, 1954년;육·해·공자위대 창설, 1965년;한일국교정상화, 1970년;오키나와 반환, 1975년;베트남 전쟁 종결, 1990년;냉전종결, 독일통일, 1994년 7월 20일;러시아 옐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관련문서 전달, 2000년;6·25전쟁 발발 50주년, 2004년;자위대 창설 50주년, 2005년;한일국교수립 40주년, 베트남 전쟁 종결 30주년 등, 또는 중동전쟁이나 PKO파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선언, 9·11 이후 등, 일련의 주기와 관련하여 6·25전쟁의 연구경향도 고찰할 과제이다.

참전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의 전사도 발간되고 있다. 6·25전쟁은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일본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그래서 연구물도 많으며, 픽션도 많다.

6·25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8일, GHQ는 일본에 "일본은 양호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 소수자가 사회혼란을 야기 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7만 5,000명의 경찰예비대를 창설하고, 해상보안청 8,000명 증원을 허락" 했다. 이 목적은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함으로서 발생한 공백을 메워, 일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산침략의 위험에 대비하고, 일본 국내치안을 담당할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39]

(2) 6·25전쟁의 장차연구

전쟁관련국이 전쟁 당시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동조사 비교연구, 검토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전쟁은 개전·휴전을 거처 평화조약

39) 讀賣新聞社戰後史班編, 『昭和戰後史'再軍備'の軌跡』, 1981, 讀賣新聞社.

체결로 통하여 법리적으로 전쟁이 종결된다. 대부분의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확실하나, 6·25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휴전한 상태라서 개전책임론은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개전책임론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사에 다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분단국가로서 지금도 동북아는 물론 국제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30년이 지난 비밀문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0년 냉전종결 후 구소련의 자료는 그 일부가 공개되었다. 과거 6·25전쟁에 참전한 인민군 간부의 증언, 수기 등이 공개되고 있다.

6·25전쟁이 남북한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남북한 전사연구팀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전이라는 측면에서 관련국가들의 공동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의 참여가 어려우면 그 밖의 국가라도 가능하다.

장차 연구가 더욱 심화되어야할 과제를 몇 가지 정리해 본다.

첫째, 6·25전쟁 이후 일본방위 연대기와 상관하여 6·25전쟁은 어떤 경향으로 연구되었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6·25전쟁 전후 당시의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중·소공산당과 일본공산당, 조선공산당(북한), 재일조선인(조총련) 등의 연대관계는 물론, 6·25전쟁 당시의 미군지원 및 증원 방해 등의 제5열 활동은 더욱 연구되어야 한다.

셋째, 6·25전쟁 당시 일본의 유엔군지원활동은 비밀리에 실시되었다. 특히 해상수송활동, 기술자, 노무자파견과 활동, 구호 및 사망자 수송, 밀입국 등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시간이 너무 지나기 전에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넷째, 6·25전쟁 당시 유엔안보리 관계도 사실관계를 밝혀 유엔의 집단안보체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진보적 관점에서 6·25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유엔군 창설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반미운동, 기지반대와 연계되어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

4. 맺 음 말

역사는 모든 학문의 조상이다. 전쟁지도를 위해서도 전사를 배운다. 6·25 전쟁사를 통하여 장차전에서의 전쟁지도 원칙을 배울 수 있다. 일본은 6·25 전쟁을 주변사태시 일본방위에 대응하는 사례연구의 보고(寶庫)로 여기고 있다. 6·25전쟁에서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에 대한 협력을 통하여 전후 정신적, 경제적 부흥, 강화의 촉진, 미일안보조약체결로 서방진영으로 편입, 재무장하게 되었다.

6·25전쟁에 대한 일본의 연구동향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25전쟁 개전 이후부터 냉전기간 중에는 진보지식층이 중심이 되어 북한의 6·25전쟁 간행물이나, 한미공모에 의한 선공설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발간물을 번역하여 공산권의 선전도구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좌익적 경향은 미군점령정치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 1960년대 미일안보투쟁, 반미감정이 반전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선전적인 색채의 연구산물이 많았다.

둘째, 냉전종식 후, 구소련의 전쟁관련문서가 공개되면서부터 균형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위와 같은 경향은 달라진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북침설이나 미국의 음모설, 한미공모설 등 수정주의가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진보정당이나 언론에서는 공산권과 미국의 공동책임론, 6·25전쟁 당시 창설된 유엔군의 위법성 제기하여 반미운동의 재료로 연구하는 경향도 있다.

셋째, 자위대 군사기관에서는 전략전술 및 전쟁지도,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사태의 원형, 미·일 가이드라인법 제정에 따른 미·일 방위협력의 역사적 교훈, 유엔을 포함한 연합 및 합동작전의 모델로서

의 6·25전쟁을 깊게 연구하고 있다.

넷째, 대학에서 학문적인 연구의 공통점은 6·25전쟁이 국제내전이라는 점과, 일본도 관련국이었다는 점이다. 진보언론이나 정당에서는 6·25전쟁을 내전이라고 보는 견해에 비해, 대학의 연구자들은 국제관계와 한반도 남북한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일어난 전쟁으로 보고 있다. 전자는 한반도의 내전에 미국의 군사개입이나, 일본의 유엔에 대한 지원도 잘못이라는 논리이다. 후자는 국제내전이라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개입과 일본의 유엔지원의 당위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원고투고일 : 2005. 4. 19, 심사완료일 : 2005. 6. 4)

주제어 : 6·25전쟁, 유엔군, 대일정책, 강화조약, 자위대

<ABSTRACT>

The Research Trend in Japan on the Korean War

Lee, Jong-pan

This paper is aimed to investigate Japanese research trends concerning the Korean War. Japan was defeated in the war in the Pacific, was put under the allied forces. During the early policy stage toward Japan, the General Headquarters(GHQ) of the Allies had took three D policies - democratization, demilitarization, decentralization, so Japan could not bring on war.

The Korean War gave an enormous influence upon defeated Japan. Accordingly, there are various research products. The concerns about these have been very high according to a series of periods: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armistice 30th anniversary, the truce 40th anniversary, the truce 50th anniversary and so on. The responsibility for commencement of war was divided into four causes: the preemptive attack of North Korea, the tri-partite conspiration(USSR, PRC and North Korea), the preemptive attack of South Korea, the bi-partite conspiration(USA and South Korea).

Before the documents connected with the Korean War were thrown open to the public, Japanese progressive scholars translated propaganda records of North Korea & the Communist bloc and anti-government activity papers within the USA. And they proposed that the bipartite conspiration(USA and South Korea) got influential much more.

Together with the end to a cold war, some secret documents of USSR

and PRC being disclosed, this research trend became dwindling away.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seems more and more dangerous. The reasons are as follows : the test-firing of a missile of North Korea, the gunfight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because of the invasion of North Korea's operation ship into Japanese territorial waters, the kidnapping problem of Japanese by North Korea, the nuclear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the like. On that account, Japan has concerns for "His Self Defense". And Japanese would like to take historic lessons in the Korean War.

The main points of this article is to discover who has studied the Korean War and why to do so in Japan. The subject of this study might be research trends of progressive scholars before and after the revelation of important documents concerning the Korean War of Self Defense Forces' educational institutions, three Japanese Universities(including Tokyo University), and the Communist orbit.

Finally, the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originated from the Korean War, which has influenced the power structure of the northeast Asia and Japanese directions after the defeat of the Pacific War. So, the nations concerned put toward the necessity of joint researches on the Korean War.

Studies on the Korean War history has been making progress with the disclosure of secret documents of the nations concerned. Especially, the opening of USSR's documents has been conducive to researchers. As data of the Communist bloc is open to the public, the revisionist theories(the preemptive attack of South Korea, the USA's conspiration or the bipartite conspiration of the USA and South Korea) within Japan are diminishing more and more. However, the progressive party or the progressive press suggested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of the Communist orbit and the USA, that is to say, the illegitimacy of UN forces established in the period of the Korea War. They are used to study these data for the anti-American

movement. Considering these environments, we must cope with such research trends through the well-balanced researches.

Key Words : The Korean War, The UN forces, Policy toward Japan, Peace treaty, Self Defense Forces